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NERIRI KIRURU HARARA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도록 에세이를 위한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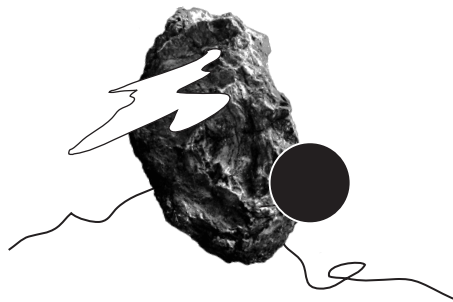
백지숙, 미디어시티서울 2016예술감독

오늘날의 비엔날레는 예술가들이 세계시민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미술 위키피디아'이다. 세계비엔날레 위키에서 미래라는 항목은 전례없이 두터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 정의상,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수많은 가능태 중 하나일 뿐더러, 과거만큼이나, 각기 다르며, 어찌면 다다익선이다. 보편 미래를 강제하는 중심들에 의해 포획당하지 않으려면, 탈식민화된 미래들은 동시다발이며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2016은 반도이자 섬(분단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인 남한에서 편집해보는 어떤, 세계의, 미래상이다.

2016년, 한치 앞 시계視界도 분간하기 어려워진 이곳에서 요청하는 미래란, 재난의 파고가 한층 높아진 이후 더 절박해진 공간감과 관련이 있다. 전면화된 불안정성과 유동성, 우발성은 역사에 대한 안목과 사상의 시야를 급속히 근시화하고, 윤리와 심성의 지평마저 협애화한다. 전쟁과 테러, 재해, 역병, 빈곤 등 원치 않는 재난을 통과해야 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공포와 불안에 엄습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번덕과 혐오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때문에라도, 파국으로 치달는 '대홍수'가 세계 거주민들을 오갈곳 없는 지대로 긴박하게 내모는 순간에, 급진적인 단절과, 그래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역설적 계시, 그드러남을 우리는 간절히 고대한다. 이미 몇번 종말론을 치루었던 예술은 스스로 과거를 해체하며 장애의 시간들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간혹 시야를 쪼개고 지평을 찢어, 사이사이, 미래의 형성formation이 드러나게끔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인생보다 길 수 있다.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일본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의 시 「20억광년의 고독」에서 화성인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팽창하는 공간, 초시간의 고독과 마주하여 우주 생명체를 호명하던 이 상상력은 양차대전 후 '여진餘震'이 얼어붙힌 외계 속으로 연대의 신호를 쏘아올렸다. <미디어시티서울> 2016은 더 이상 어떤 외부도 상정할 수 없게 된 인류세의 도래를 틈 타, '구성적 미래'에 관한 탐사를 시작한다. 행성 자본주의와 면역화된 민주주의, '초과물hyperobjects' 시스템 등의 실체와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익숙한 모어母語를 통해 외계어를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창안한 언어들 이계異界로 전파하고자 한다.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서 이들은, 테크놀로지로 복각한 고대인의 노래를 우리 귀에 들려주고, 도무지 알수 없는 글을 남겼던 사상가의 일기를 상상의 눈으로 독해하며, 미지 언어를 신체만으로 통역한다. 기성 언어를 해체, 재조립하여 작동하는 여러 허구적 층위를 매개하면서 이들 작가들은, 우리가 어떤 해명의 층위에서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알아채게 되는 지점들이 어디인지를 직접 시연해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가시 세계를 넘어서 다차원의 시공간을 열어젖힐 수 있는, 다양한 이행 형식들이 형성될 수 있다.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는 현재 포스트인터넷 환경에서 이미 상용화된, 드론, VR, 구글어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3D 프린팅, 게임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의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된다. 여기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기술도구나 재료일 뿐 아니라, 감각을 변형시키는 활동이자 변화하는 환경을 해석하는 적극적인 관계맺기로 이해되며, 작가들은 새로운 정치 경제학적 구조 속에서 이를 항시적인 사회 문화적 실천으로 짜맞춤해간다. 제각기 창안한 언어들 공유재화하려는 작가적 충동의 결과,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가능태의 리얼리즘realism of the possible'을 살아있는 작품들로 제시하며, 마침내, 말은 살이 된다.



9.1 —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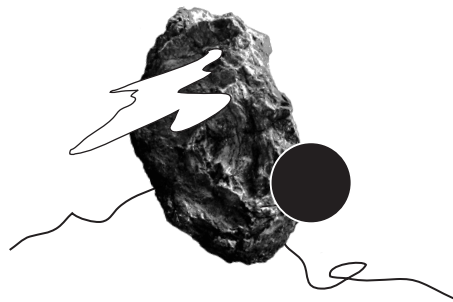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NERIRI KIRURU HARARA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서 미디어는 매개 기능 못지 않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특수한 장소topos들과 접속된다. 인섹트insect 미디어에서 마을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구동하는 효과로서 파생되는 다양한 공동체의 양상들,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는 언어들과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SeMA 비엔날레 '위키' 목차 (만약 만든다면)에 등록될 것이다. 이 공동체는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 초대된 <황새등지>일 수도, <더 빌리지>일 수도,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고, 이들의 언어가 들어있는 타임캡슐은 이들의 작품, 가령 <추락하는 비행선>, <썰매>, <카벙가> 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반도이자 섬인 이곳에서 타임슬립하여 조우하는 세계는, 'K 미래', <모두가 연결되는 미래> 혹은 <나의 가장 과격함>일지도.

*이 글의 확장판은 2016년 11월 발간될 <미디어시티서울> 2016 도록 서문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상민, 「신체, 어펙트, 뉴미디어」, 『한국학연구』 제 36집,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년 3월, 5-31쪽.
다니카와 슌타로, 김응교 옮김, 『이십억광년의 고독』,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년, 51-52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편집부 외, 『떠나자 서울 마을미디어 여행』, 서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년.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김상운 옮김, 「면역적 민주주의」, 『문화/과학』, 서울: 문화과학사, 2015년 가을호 (83호), 390-405쪽.
마가렛 애트우드, 『홍수』, 서울: 민음사, 2009년
문강형준, 「재난, 초과물, 지구」, 『연세대학원저널』 2호 (#208), 2015년, 13-14쪽.
문지문화원사이 편집부 외, 『인문예술잡지 F』 19호, 서울: 문지문화원사이, 2015년.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리안논 노엘 웰치 옮김, 『Term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mmunity, Biopolitics』, 뉴욕: 포드햄대학교 출판사, 2013년.
마가렛 카빈디쉬, 케이트 릴리 편, 『The Blazing World and Other Writings』, 런던: 펄컨 출판사, 1992년.
클레어 에반스, 「Can Science Fiction Helps Us Dream Our Way out of Disaster」, 『Creative Time Reports』, 2015년 8월 20일. HYPERLINK "<http://creativetimereports.org/2015/08/20/claire-levans-anthropocene-fiction.html>"<http://creativetimereports.org/2015/08/20/claire-levans-anthropocene-fiction.html>.
유시 파리카, 『Insect Media: An Archaeology of Animals and Technology』,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대학교 출판사, 2010년.
프레드릭 제임슨, 「The Politics of Utopia」, 『뉴 레프트 리뷰』 25호, 2004년, 35-54쪽.
파울로 매가놀리, 『Documents of Utopia』,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출판사, 2015년.
Willem van Weelden, 「Sparking a Different Light」, 사샤 카라리치 개인전 『Fiction Level』 도록, 스톱스카 공화국 현대미술관, 2009년. HYPERLINK "<http://www.sasakaralic.nl/O2TEXTS/O1-willem.htm>"<http://www.sasakaralic.nl/O2TEXTS/O1-willem.htm>.



9.1 — 11.20